

광양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 본격 추진

국비 등 11억 원 투입...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구축

광양시는 2022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으로 국비 9억 2천만 원 등 11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한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구축사업의 조달발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ICT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독서 △MR 스포츠 서비스*로 광양시 18개 지역 아동센터 500여 명에게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 추진일정은 다음 달 10월 입

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말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원격수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학습 성장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신 정보통신과장은 "본 공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사업(11억 원), 지역SW서비스사업화(4억 4,300만 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사업(2억 원) 등 4건의 정보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1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 '찾아가는 혈관 지킴이 교실' 운영

곡성을 8개 경로당 대상 내달 9일부터 7월 1일까지

곡성군이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곡성을 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한차례씩 심뇌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맑은 혈관 지킴이 교실은 고령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돼 실시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이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곡성군은 심뇌혈

관 질환에 대한 기초 지식 교육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사전 및 사후 기본 검사, 체성분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건강 박수 체조, 물리 치료, 발 관리, 요가 등 심폐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맑은 혈관 지킴이 교실은 심뇌혈관 질환자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군민들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상석 기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순천시, 참여기업 추가 모집

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기업 5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명 이상 300미만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연차별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현황 확인자료 등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순천시 투자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성 '온기(溫氣)품은 돌, 오봉산 구들장' 특별전 인기

채석지가 국가문화재로 등재 기념 전시 기획



보성군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는 특별전 '온기(溫氣)품은 돌, 오봉산 구들장'이 세대공감을 일으키며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한국차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달 26일 마무리되며,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울포해수욕장센터 내 보성아트홀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가 국가문화재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당시 생활의 터전이었던 선조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봉산 구들장의 우수성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전시실 입구에는 구들장을 실은 소달구지 모형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내부에는 구들 구조를 따라 연기의 이동을 살펴보고 온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구들장 채석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채석된 구들장을 볼 수 있으며, 영상자료를 통해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당시 구들장 경험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은 전시 패널을 통해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감동을 엿볼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를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고흥 영양플러스 사업 온라인 교육 실시

임산부·영유아 영양건강

고흥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대면 교육이 중단된 이후 우편물을 통해 교육을 대체해 왔으나, 5월부터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온라인 교육시스템(EBS 육아학교)을 활용한 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유, 분유, 달걀 등의 영양식품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내용은 임신기 영양관리의 중요성, 모유수유 성공 비결, 영유아의 비만 예방과 관리법, 영유아변비 예방법 등 시기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퀴즈를 통해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도 교육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노후자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임산부 및 영유아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흥=최혁민 기자

여수 폭염대비 그늘막 운영

여수시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폭염대비 그늘막'을 본격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그늘막 덮개를 제거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제 점검해 144개소의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예년보다 빠른 기온상승으로 일찍 운영을 시작했다며, 추가로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 7개소도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늘막은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주로 설치해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여수=조일상 기자

순천 별량면, 논을 도화지 삼아 한 폭의 그림 스케치

25일 봉림마을 앞 뜰서 논 ART 모내기 행사

순천시 별량면 마을교육자치회는 오는 25일 별량면 봉림리 봉림마을 앞 뜰 일대에서 제5회 별량면 농업 생태공원 논아트 모내기 행사를 실시한다.

별량면 논아트 조성사업은 별량면 주민자치회가 2018년부터 각종 유색비를 이용해 논에 그림을 그리는 사업으로, 별량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리며 생태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각 기관·단체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2023년 우리 모두는 정원에 삽니다'와 세계적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을 그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영수 별량면 마을교육자치회장은 "올해는 그동안 선보인 생태, 농업 관련 주제와는 다르게 영화의 명장면을 그려 넣어,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별량면 마을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논아트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촌자원을 활용

한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별량면을 기억하고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환 별량면장은 "이번 논아트 모내기 행사를 통해 별량면의 친환경 농업을 알리고 별량면이 가지고 있는 순천만의 정경 자원과 연결해 별량을 찾는 생태 관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별량면 시민정원추진단과 송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논아트 조성지 일원 하천 주변에서 식원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가을이 되면 논아트와 함께 볼거리가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 나서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체육시설 안전수칙 홍보 강조

구례군이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23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적극 점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권한대행은 신속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총력 대응,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자 방문에 따른 적극 지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업무 추진 및 공직 기강 확립,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

고 민간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급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안전수칙 게시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체육시설 사업주와 소통하여 체육시설 알리미(www.spoinfo.or.kr) 누리집 접속 후 해당하는 시설의 가이드와 포스터 등을 다운로드 받아 인쇄 후 게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민간체육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군

Golden Rose Festival Season 2

제12회 곡성 세계가랑이축제

2022. 5. 21. 토 ~ 6. 6. 월

곡성섬진강기차마을